

정밀성의 기술



예거 르쿨트르의 기반,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

예거 르쿨트르 역사는 스위스 쥐라 산맥에 인접한 발레 드 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매뉴팩처가 위치한 이곳의 환경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면서도 그 안에서 열정적으로 변화, 발전해 온 브랜드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습니다. 인내심과 고요함이 가득한 풍경 속에서 진정한 예술적 열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밀성의 전통이 성장했습니다.

정교한 기술과 완벽한 기법의 조화

예거 르쿨트르에서 선보이는 워치메이커의 예술의 정수는 바로 정밀한 기법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숙한 장인정신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밀리노미터에서 자이로투르비옹의 발명에 이르기까지, 매뉴팩처의 다양한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수공예 예술과 마스터 워치메이커의 다방면에 걸친 전문성 속에서 정교한 기술과 미학적 노하우를 모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장인정신과 정밀성

매뉴팩처는 설립 초기부터 무브먼트의 정확성과 기술적 정밀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계절이 바뀌어도 고요함이나 적막함이 그대로 깃들여 있는 스위스의 자연환경에서 기인했으며, 더욱 성장해 나갔습니다. 매뉴팩처의 마스터 워치메이커들은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이로부터 영감을 얻으면서 심혈을 기울여 독창적인 스케치를 완성하고 밸런스 휠과 이스케이프먼트 휠의 진동 주기를 만들어내며 정밀성의 한계를 극복해왔습니다.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

칼리버에서 케이스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시계는 한 지붕 밑에서 전적으로 디자인과 제작 및 조립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예거 르쿨트르라는 이름은 흥미로운 수치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180 여 개의 전문 기술과 수공예 기법으로 심플한 것에서 가장 복잡한 칼리버에 이르기까지, 400 여 개의 특허를 획득하며 약 1,250 개의 칼리버를 생산했습니다.

정밀성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은 메종의 기념비적인 발명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 세계 최초로 선보인 작품들입니다. 1844 년 밀리오노미터. 1895 년 최초의 그랑 컴플리케이션 포켓 워치. 1958 년 지오피직 크로노미터. 1967 년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20. 1992 년, 1,000 시간 마스터 컨트롤. 2004 년 자이로투르비용 1. 2007 년 듀오미터와 듀얼-윙 콘셉트. 2009 년 크로노메트리 대회 우승. 여기에는 예거 르쿨트르의 획기적인 발명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메종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매뉴팩처로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정밀한 발명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는 모든 작품을 고안, 제작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작은 디테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기울이는 인내심을 바탕으로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예술의 경지에 오른 정밀성

예거 르쿨트르는 정밀성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기술적, 기계적 정밀성이 장인정신의 정밀함과 예술적 노하우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는 오랜 전통의 기요세, 인그레이빙, 보석 세팅 및 에나멜링 등의 장인 기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메종이 보유한 전문성과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수공예 예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뉴팩처"라는 명칭이 의미하듯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손입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프로토타입을 고안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도구와 기구, 무브먼트와 무브먼트의 박동, 소재와 진귀한 스톤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은 바로 기술 연마를 멈추지 않는 장인의 손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신중하고 철저하며, 완벽하고 정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스터 울트라 씬 문 에나멜

마스터 울트라 씬은 라운드 형태와 간결한 라인으로 시계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극도로 얇은 케이스가 특징인 이 모델은 발레 드 주 매뉴팩처에서 세대를 걸쳐 이어져 온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수공예 예술의 두 가지 기법인 기요세와 에나멜링을 강조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자체 공방에서 보석 세팅, 인그레이빙, 기요세 및 에나멜링 기법을 사용하는 몇 안 되는 매뉴팩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예술 기법은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며, 대개 100 년이 넘는 기계의 도움과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에는 기술적, 예술적 정밀성의 새로운 차원이 펼쳐집니다. 예술적 경지에 오른 정밀성은 예거 르쿨트르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마스터 울트라 씬 에나멜 모델의 기요세 에나멜 기법으로 완성된 외관은 정밀성과 정교함을 입증해 보이며, 위풍당당한 매력을 선보이는 강렬한 딥 미드나잇 블루 컬러가 리미티드 에디션의 케이스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마스터 울트라 씬 문 에나멜

100 피스의 리미티드 시리즈로 새롭게 선보이는 마스터 울트라 씬 문 에나멜은 수작업으로 새롭게 완성한 기요세 블루 에나멜 다이얼과 아워 마커, 폴리싱 처리된 문페이스, 인그레이빙 카운터가 선사하는 간결하고 세련된 워치메이킹 스타일을 통해 독특한 개성을 드러냅니다. 지극히 슬림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10.04mm)에 둘러싸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25,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70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수작업으로 완성된 기요세 블루 에나멜 다이얼

마스터 울트라 씬 문 에나멜의 우아함은 기요세 블루 에나멜 다이얼의 독보적인 디테일로부터 탄생합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딥 블루 컬러는 기하학적인 모티프와 그 어느 때보다도 세련된 전통적인 장식 기법인 기요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오랜 전통의 에나멜링 기법은 1996 년 매뉴팩처에서 복원되었습니다. 에나멜링 기법은 매뉴팩처의 숙련된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완성하며, 고도의 집중력과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요세 작업과 반투명한 블루 에나멜 층을 완성하는 것 역시 극도로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폴리싱 처리된 새로운 문페이스

마스터 울트라 씬 문 에나멜은 작은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주의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문페이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달이 가득 찼을 때, 완벽하게 둥근 형태의 폴리싱 처리된 화이트 디스크가 별이 가득한 배경 속에 떠오릅니다.



한층 새로워진 아워 마커와 인그레이빙 카운터

폴리싱 처리된 문페이스와 함께 100피스 한정 제작되는 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지난 20년간 워치메이킹의 클래식으로 자리매김한 마스터 울트라 싼 컬렉션의 기준을 재해석하여 선보입니다. 시계 애호가들은 더 길어지고 12시, 3시, 6시, 9시 방향에 두 개로 나뉘어진 아워 마커의 새로운 디자인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6시 방향의 날짜창에는 폴리싱 처리된 문페이스를 탑재한 카운터가 인그레이빙되어 날짜를 표시하는 숫자가 더욱 돋보입니다. 존재감과 절제미가 어우러져 시각적 효과를 자아냅니다.

기술과 예술 사이를 오가며 춤추는 듯한 세심한 터치가 돋보이는 이 상징적인 타임피스는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 예술가, 장인들이 일구어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창의성과 기술적 완벽함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마스터 울트라 싼 문 에나멜

크기: 39mm

두께: 10.04mm

칼리버: 925/2 - 오토매틱

케이스: 화이트 골드

방수: 5바(bar)

기능: 시/분/초/날짜, 문페이스

파워 리저브: 70시간

다이얼: 블루 기요세 에나멜

케이스백: 오픈

리미티드 에디션: 100피스

제품 번호: Q13635E1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설립 이래 뛰어난 노하우와 예술적 감각, 세련된 스타일과 섬세한 디자인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1833년 창립자 앙트완 르쿨트르로부터 시작된 발명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는 매뉴팩처의 장인들은 파인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잇는 컬렉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리베르소와 마스터,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랑데부, 애틀모스와 같이 수세기를 걸쳐 그랑 메종이 구축해온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브랜드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www.jaeger-lecoultre.com